FTA 발효 이후 한국의 낙농상황

조석진 소장, 일본「도카치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지난 2월 21일, 한국의 FTA 발효 이후 낙농상황 및 전망에 대해 일본의「도카치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TPP 타결에 집중함으로써 2017년 1월 20일 TPP 비준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TPP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TPP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후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한 FTA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2012년 3월 이미 한미 FTA를 발효시킨 후 5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경험은 일본 낙농업계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FTA 발효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가?

미국을 중심으로 치즈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2015년 현재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제2의 치즈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5년의 국민 1인당 치즈소비량은 2.6㎏으로, 같은 해 일본의 2.4㎏을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유제품소비가 시유중심에서 점차 치즈를 중심으로 저가의 수입유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현재 한국의 우유자급률은 56.5%까지 하락하여 일본의 63.0%를 밑돌고 있으며,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Q. 한·미 FTA 발효 5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국내 낙농에 대한 영향은?

저가의 유제품수입증가는 대내적인 출산율저하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금후 우유소비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 즉, 사실상 시유생산에 국한되고 있는 국내 낙농에 있어서 시유소비 감소에 따른 낙농산업의 축소균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015년에 일시적으로나마 캘리포니아산 시유까지 수입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 같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Q. 금후의 과제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시유소비감소와 함께 우유소비가 점차 치즈, 생크림 등 고급유제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치즈, 생크림을 포함하여 소비가 점차 늘고 있는 차별화된 국산유제품생산을 제도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낙농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아울러 최근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포함하여 이미 발효된 타국과의 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낙농부문에 대한 불리한 한미 FTA 협상결과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